

이용섭 시장, 광역단체장 최초 '목민상' 영예

소상공인연합회 수여...상생카드 정책 등 호평

"영세상공인 권익보호·지역경제 살리는데 최선"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9 목민상 시상식'에서 광역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목민상'을 수상했다. <사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소상공인 권익과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선정해 '목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이 시장은 광주상생카드·빛고를 소상공인 지킴이 등 광주만의 독특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광주시가 추진한 ▲광주상생카드 출시 ▲빛고를 소상공인

인 지킴이 사업 ▲민생경제 현장투어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특례보증 정책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출시 8개월 만에 626억원이 발행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광주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 광주상생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빛고'를 소상공인 지킴이'도 지역 소상공인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지역청년 10명을 선발해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교육시켰다. 이들은 소상공인 업소 1만3,215곳을 방문해 428개 사업신청을 대행했으며, 경영·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35억원 이상을 지원받도록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올해 민생현장 투어 15회, 중소기업 현장투어 15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간담회 등을 꾸준히 실시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보에 나서고, 골목상권 특례보증제도 운영,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운영했다.

이 시장은 시상식에서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과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통합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기자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검찰공정특위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 이종걸·백혜련·이상민 의원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호남 정치혁명"...박시중, 광산을 출마 선언



박시중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5일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와 호남의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 정권교체의 교두보, 정치혁신의 진원지였다"며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시민의 몫이었고 정작 광주 정치는 높고 낮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는 광주의 길에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황애란 기자

이상의, 내일 합평서 '...삶의 지혜' 출판기념회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부위원장이 오는 7일 합평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농산물유통으로 배운 삶의 지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인 합평군수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계호·김정호 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안규백·황주홍·진선미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합평·윤예중 기자

총선 앞 출판기념회 '붐물'

윤영덕, 8일 남구문예회관 '세상을 잇다'



내년 총선 광주 동남갑 출마를 선언한 윤영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8일 오후 1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신의 정치 비전과 포부를 담은 칼럼집 '세상을 잇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또 '사람과 인연, 세상을 잇는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연다.

윤 전 행정관은 정치칼럼집 '세상을 잇다'에서 중앙정치와 광주경제를 잇기 위한 비전을 비롯해, 이념·세대·남북을 잇기 위한 화합과 상생의 길, 나아가 광주의 민주적 공동체 가치를 세계로 잇기 위한 실천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 전 행정관은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광주YMCA 이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 등의 시민활동을 하고 2016년 지역공공정책 플랫폼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광주로(路)' 설립을 주도해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

이병훈, 내일 조선대서 '더불어 사는 경제...'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전 부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다.

출판기념회는 가수 유열의 사회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민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30여분간 토크쇼로 진행된다.

책지는 총 4장으로, 1장은 새로운 경제-광주형일자리, 2장 골목경제 '신의 한 수', 3장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4장 '정치를 바꾸자'로 정치적 소신을 담았다.

이 전 부시장은 "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굽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느꼈던 소회와 골목경제 살리기 방안, 미래산업과 같은 현안의 해결책을 풀어냈다"고 말했다.

이석형, 내일 호남대서 '...창조경영'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광주 광산구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이석형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블루오션과 창조경영' (클라우드나인) 출판기념회를 연다. 책지는 이 회장이 전국 각지를 돌며 600회 이상 강의해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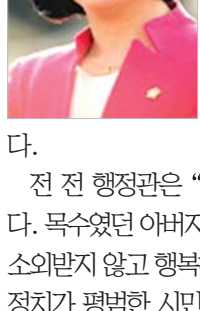


'블루오션과 창조경영'을 정리하고, 더 좋은 광주와 광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더해 정리한 것이다.

이 회장은 저서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평소 소신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담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회장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로 평가 받고 일로 선택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일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진숙, 8일 교통연수원서 '희망의 증거'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를 출마를 선언한 전진숙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령머시실 행정관이 오는 8일 오후 3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희망의 증거'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전 전 행정관은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희망연탄을 기증받아 '희망연탄 나눔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 전 행정관은 "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힘들게 걸어야 했다. 묵수였던 아버지와 생선장수였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 왔다"며 "이제 정치가 평범한 시민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어 한다"고 정치신념을 밝혔다.

최희용, 8일 제이아트웨딩서 '...공정경제'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오는 8일 오후 4시 30분 제이아트웨딩컨벤션에서 경제명문집 '제2순환도로로 가는 공정경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그는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바꿔 소득주도성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광주 '제2순환도로'와 '맥거리' 문제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최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책 소개와 함께 관객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 전 대표는 "독점자본이면서 공공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시장경제와는 먼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황애란 기자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